

잊지 못할 취재원, 프로골퍼 신지애 ‘진주는 흙 속에도 있다’

한국스포츠경제

박종민 기자



신지애가 지난 2018년 5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음료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고 있다.
(신지애 인스타그램)

2020년 봄은 유난히 특별했다. 봄이 되면 으레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밴드 버스커 버스커의 히트곡 ‘벚꽃 엔딩’ 조차 잘 들리지 않았고 텅 빈 거리와 이따금씩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만 기억에 남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바꾼 일상의 생소한 모습들이었다. 지난 2013년 개봉한 영화 ‘감기’의 실사판이기도 했다. 영화 ‘감기’는 호흡기로 감염되는 치사율 100%의 바이러스가 한국을 휩쓸면서 정부가 도시 폐쇄를 결정하고, 갑자기 격리된 사람들이 아비규환 속에서 목숨을 건 사투

를 벌이는 내용의 재난 영화다.

지난 3월과 4월은 9년 차 체육부 기자에게도 낯선 시간이었다. 한창 진행 중이던 프로농구와 프로배구 시즌이 조기 종료되고, 프로야구와 프로축구의 개막마저 뒤로 밀렸다. 신문 지면에 늘 들어가던 ‘오늘의 경기’란은 사라졌으며 체육 기자들은 국내외 스포츠 경기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인터뷰와 기획 시리즈로 지면을 메우기 바빴다. 재택근무가 장려됐고 인터뷰는 비대면인 전화나 서면 인터뷰가 주를 이뤘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된 시

간이었다. 마스크 없이 편하게 숨을 쉬고, 식당에서 사람들과 마주 앉아 눈치 보지 않고 박장대소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을 다시 마주하고 싶었다. 체육 기자로서는 코트나 그라운드에서 땀 흘리는 선수들의 모습과 매일 나오는 경기 스코어가 그리웠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떠오르는 취재원이 있다.

코로나19 시대에 떠올린 신지애 인터뷰

2018년 12월11일과 59분09초.

휴대전화에 저장된 한 인터뷰 녹음 파일의 녹음 날짜와 시간이다. 지금도 그 날의 한 시간 남짓한 인터뷰를 떠올리면 입가에 미소가 그려진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만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취재원 중 한 명이었다. 취재원은 바로 프로골퍼 신지애다. 단순히 지난 2010년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에 올랐던 거물급 프로골퍼를 단독 인터뷰해서 기억에 남는 건 아니다.

요즘같이 모두가 지치고 힘든 세상에 그가 인터뷰에서 꺼낸 삶의 이야기와 생

각은 적지 않은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의 인터뷰는 하나의 훌륭한 자전적 에세이였고 완벽한 자기계발서였으며 독자들을 감동하게 만들 기사였다. 신지애는 굴곡진 인생 경험을 통해 평범한 일상을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기게 됐다.

서울 종로구 당주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한 분야 정점을 찍었던 선수답지 않게 친근한 미소로 기사를 대했다. 기자가 메모지를 꺼내고 휴대전화 녹음 준비를 할 때까지의 공백이 주는 어색함을 덜기 위해 먼저 말을 건네줬고 기다려줬다. 이어 그의 입을 통해 인생 얘기가 잔잔하게 흘러나오면서 기자 역시 지난 인생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1988년생인 골퍼 신지애는 알고 보니 양궁 선수 출신이었다. 양궁 선수였던 그는 초등학교 3~4학년 때 부단히 훈련했지만 자세 교정이 잘 이뤄지지 않아 낙심한 적도 있었다. 그러던 그는 1998년 여름 골프 선수로 진로를 바꾸게 되는 중대한 사건을 마주했다. 신지애의 부친은 TV 중계를 통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대회 US오픈 박세리의 우승 장면을 보고 딸을 골프 선수로 키우겠다는 결심을 했다. 박세리가 당



신지애(왼쪽)가 지난 2018년 9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사진 속에서 '우상' 박세리와 얼굴을 맞댄 채 활짝 웃고 있다. (신지애 인스타그램)

시 18번홀 해저드에 빠진 공을 치러 양말을 벗고 들어가 샷을 하는 장면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로 그들졌던 사회에 한 줄기 희망을 줬다.

신지애는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라는 원대한 목표를 잡고 고된 훈련을 시작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골프채를 잡았는데 학교 오전 수업을 끝내고 오후부터 골프연습장이 끝나는 밤 10~11시까지 훈련을 했다고 그는 회고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퍼팅 매트 위에서 아버지가 낸 과제를 빠짐없이 소화했다. 그리고 오전 1시가 돼야 잠이 들곤 했다. 어린 나이에 고강도 훈련을 받게 돼 힘들 법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면도 회

복 시간이라 골프 훈련의 한 부분이라 여겼었다”는 답변이 기사를 놀라게 했다.

어머니 여의고 세계 1위 ‘굴곡진 인생역정’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훈련하던 그에게 2003년은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여윈 것이다. 16세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벅찬 아픔이었다. 신지애는 “그 사건을 계기로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까지 제가 느낀 골프의 장점은 다음 날 새롭게 18홀을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기회가 왔을 때 놓쳐도 또 기회가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중요한 순간들을 흘려보냈다”며 “시간과 기회를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에 이후부터는 후회할 결과를 내고 싶지 않았다”고 돌아봤다.

이전까지는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더러 있었지만,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부터는 그러한 고된 일상조차 선물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현재(The Present)’라는 시간이 ‘선물(The Present)’이었던 셈이다. 입술을 더 굳게 다물고 샷을 하기 시작한 신지애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4개월 만

▶ 인터뷰 한·미·일 상금왕 '눈앞' 신지애 1면 기사 이어짐

“골프는 내 인생의 ‘바탕화면’ ... 14년차 목표는 JLPGA 상금왕”

정상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했다. 주변을 돌보지 못했고 내가 잘못하면 다 무너질 것 같아서 불안했다. 하지만 넘어졌더니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들이 많았다. 어렸을 땐 몰랐던 행복을 많이 깨달았다.

나중을 위해 지금의 행복을 미루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의 나를 축하하면서 '미래에 행복할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 지금 먹고 있는 커피 한 잔이 맛있다면 그것도 기쁘다고 감사다. 행복이란 기준을 너무 크고 멀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 소소하게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찾아야 나중에 큰 행복이 왔을 때도 그럴 줄 알 수 있다. '

내 이상형은 '목소리 좋은 남자'

내 성취감과 행복감에서 '연애'라는 항목은 빠져있다. 물론 이상형은 있다. 바빠서 만나기보다 통화를 자주해야 하니 목소리가 좋아야 한다. 또 이성을 볼 때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는 편이다.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말의 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좋다. 그래서 내가 책을 좋아하기도 한다. 책은 글과 글 사이에 생각을 넣을 수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 사는 동안 영어, 일본어를 하면서 오히려 우리말에 대한 애정과 감동이 커졌다. 책을 읽으면서 작가들의 생각을 단어 하나 하나를 통해 새롭게 느낀다. 작가들이 수 없이 고민해 선택한 단어들이다. 글이 소중하고 그러다 보



니 책도 소중하다. 그 안에 내 생각을 넣을 수도 있다. 최근 읽었던 '침묵의 기술'이라는 책이 기억에 남는다. 침묵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말에 대해 준비하는 과정이며 말이 많았을 때 조용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다. 참 공감이 갔다.

아울러 나는 '만약'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선택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나는 말이기 때문이다. 골프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뭐 하고 있을 것 같냐는 질문들을 받는 데 돌아 돌아서 결국 선수가 돼 있을 것 같다. 그대 내 운명 같다. 아직 은퇴 계획도 없

다. 나를 있게 해준 고마운 사람들에게 대답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기부를 하는 것도 어릴 때 내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그분들의 삶과 꿈에 힘을 드리고 싶기 때문이다.

돌아켜보면 골프는 내 인생의 '밀그램'이자 '바탕 화면'이었다. 내가 컴퓨터라면 골프라는 바탕 화면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을 넣을 수 있었다. 골프로 인해 많은 기회를 얻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골프는 내게 '인생의 바탕' 같은 존재였다. 올해 겨울엔 지훈련은 베트남에서 한다. 14년 차가 된 올해 J.LPGA 상금왕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후배들에게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선배가 되는 것도 바람이다.

박종민 기자 mini@sportbiz.co.kr

신지애 인터뷰 박스 기사 (한국스포츠경제, 2019년 1월15일 자 4면)

신을 발견했다. 그게 너무 싫었던 탓도 있다. '우승도 습관'이라 생각하는데 미국에 계속 있다면 우승 습관과 내 골프를 잃어버릴 것 같아서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일상에서 느끼게 된 행복과 감사함

높낮이는 다르지만, 누구나 인생의 굴곡을 경험한다. 신지애의 인생 내공도 세계랭킹 1위라는 성취에서만 온 게 아니었다. 그는 굴곡을 통해서 일상에 대한 행복과 감사함을 느낄 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났다.

LPGA 투어는 대회 기간이 4일이라 연습일까지 더하면 사실상 설 틈이 거의

없다. 그러나 J.LPGA 투어는 대회 기간이 3일이라 월요일은 여유가 생겼다. 그 짧은 휴식이 신지애에게는 인생의 여유로움으로 다가왔다. 그는 “미국에서는 혼자 있을 때 불안하고 외로웠지만, 일본에서는 혼자 청소하고 빨래하고 책을 읽는 시간이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졌다. 이런 게 행복이 아닐까. 행복의 다른 말은 '감사'인 것 같다"고 전했다.

사람들은 흔히 커다란 부와 명예를 거머쥐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지애를 인터뷰하면서 그러한 생각은 '착각'이었다는 게 분명해졌다. 짧은 휴식 시간이나 원하는 무언가를 소소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조차 사실은 엄청난 행복이다.

인 2004년 봄 주니어 전국골프대회에서 정상에 등극했다. 신지애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기억으로 지금도 우승 순간이 왔을 때 최대한 신중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2006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 데뷔한 그는 그야말로 적수가 없었다. 첫해에 3승을 올렸으며 2007년에는 9승을, 2008년에는 7승을 쓸어 담았다. 3년간 상금랭킹은 모두 1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골프 취재를 담당하면서 만난 관계자들은 “신지애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보여준 임팩트는 KLPGA 투어 역대 최고다”라고 입을 모았다.

신지애는 국내 무대 부동의 1인자 반열에 오른 후 2009년 미국 무대에 진출했다. 최고의 선수였던 데다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회원이 되기 전 이미 투어 3승을 수확했던 터라 주위의 기대감은 남달랐다.

‘독한 신지애’는 또다시 일을 냈다. 프로 데뷔 4년 만이자, 미국 진출 2년 만이었던 2010년 세계랭킹 1위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신지애는 “그렇게 빨리 목표

를 이룰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성적이 좋을 때 자만심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내 위주로 돌아가는 일상을 당연하게 느낀 적이 있다. 골프는 혼자 잘할 수 없는 종목인데 그땐 왜 그렇게 생각이 짧았는지 반성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 세계 여자골프 정점에 올랐던 신지애는 이후 절망감을 맛봤다. 한동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내면서 돌연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로 선회했다. 신지애는 “언젠가부터 중위권으로 대회를 마무리해도 만족하고 안주하는 내 자

신지애 와이드 인터뷰. 인터뷰는 자서전 형식으로 풀었다. (한국스포츠경제, 2019년 1월15일 자 1면)

한·미·일 상금왕 불모지 신지애

2008년 1월15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인 '시애틀 클래식'에서 우승한 신지애. 이날은 신지애가 데뷔 후 첫 우승을 차지한 날이다. 신지애는 이날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며, 우승 상금 10만 달러(약 1억 2000만 원)를 받았다. 신지애는 이날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며, 우승 상금 10만 달러(약 1억 2000만 원)를 받았다. 신지애는 이날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며, 우승 상금 10만 달러(약 1억 2000만 원)를 받았다.

“골프뿐만이 아니라 휴식도 있는 일상”

신지애는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골프뿐만이 아니라 휴식도 있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신지애는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골프뿐만이 아니라 휴식도 있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신지애는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골프뿐만이 아니라 휴식도 있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신지애는 자신을 위한 시간, 그 고요한 시간이 즐겁고 편안하다고 했다. 가끔 바쁜 것도, 골프하면서 느끼는 우승에 대한 압박도 감사했다. 그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스트레스도 고맙다. 긴장감과 부담감도 환영이다. 내가 전진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과거 사소하고 부정적으로 여겼던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면서 세상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신지애가 지난 2018년 12월11일 서울 종로구 당주동 한 카페에서 기자와 인터뷰를 한 후 팔짱을 낀 채로 서 있다. (박종민 기자 촬영)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던 신지애는 인생 경험을 통해 깨친 행복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정상을 향해 가는 과정에선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했다. 주변을 돌보지 못했고 내가 잘못하면 다 무너질 것 같아서 불안했다. 하지만 넘어졌더니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들이 많았다. 어렸을 땐 몰랐던 행복을 많이 깨달았다. 나중을 위해 지금의 행복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의 나를 혹사하면서 ‘미래에 행복할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 지금 먹고 있는 커피 한 잔이 맛있다면 그것도 기쁘이고 감사함이다. 행복이란 기준을 너무 크고 멀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 소소하게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찾아야 나중에 큰 행복이 왔을 때도 그걸 즐길 수 있다. ‘너무 행복해서 불안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못 느꼈기 때문이다. 큰 행복도 사실 행복의 일부다.”

성공에도 늘 겸손하려는 마음가짐

다소 식상한 이상형 질문에도 그는 무릎을 탁 칠 만한 깊이 있는 대답을 내

놔다. 신지애는 “이성을 볼 때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본다.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말의 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제가 글과 책을 좋아하기도 한다. 책은 글과 글 사이에 생각을 넣을 수 있다”며 “책을 읽으면서 작가들의 생각을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 새롭게 느낀다. 작가들이 수없이 고민해 선택한 단어들이다. 글이 소중하고 그렇다 보니 책도 소중하다. 그 안에 내 생각을 넣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를 감사하게 여기고 충실히 살아가려는 신지애는 결코 과거 선택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선택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나는 말이기 때문이다. 골프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뭐 하고 있을 것 같느냐는 질문들을 받는데 저는 돌아 돌아서 결국 선수가 돼 있을 것 같다. 그게 제 운명 같다”고 고백했다. 또 “아직은 은퇴 계획도 없다. 저를 있게 해준 고마운 사람들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기부를 하는 것도 어릴 때 제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그분들의 삶과 꿈에 힘을 보태 드리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부연했다.

기자는 인터뷰 말미에 ‘신지애에게 골프란’이라는 물음을 던졌다. 그러자 “제 인생의 ‘밈그림’ 이자 ‘바탕 화면’이었다. 제가 컴퓨터라면 골프라는 바탕 화면 안에 많은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었다. 골프로 인해 많은 기회를 얻었고 많은 사람을 만났다. 골프는 제게 ‘인생의 바탕’ 같은 존재였다”는 겸손한 답변이 돌아왔다.

신지애와 마주한 게 벌써 1년 6개월 전이다. 그때만 해도 세상에 ‘코로나19’라는 용어는 없었다.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가 일상 깊숙이 침투한 요즘, 신지애 인터뷰 녹음 파일을 다시 듣게 된다. 한때 세계 정상을 찍으며 부와 명예를 다 가졌던 그 위대한 선수도 평범한 일상에서 가장 큰 행복과 감사함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그 일상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고 간과해왔다. 사실 사람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것도 결국 그 평범한 일상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화려하고 특별한 경험 속에서만 대단한 행복과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진주는 평범해 보이는 흙 속에도 있는 법이다. ♡